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12)

다 자세히 보는 2003년도 제2차 정기총회론 메시지(2)

목중에서 부르는 찬미

“밤중쯤 되여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틈타서 이에 울려호니 그 자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맴인 것이 다 벗어날지라”
(행16:25-26)

놀라운 찬양과 기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드린 기도와 찬미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은 자신들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잊기 위하여 억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었고, 그들이 읊던 기도 역시 자신들의 석방을 간구하는 애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복음전도의 역사를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들의 찬미와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는 정치기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될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배우도록 합시다.

고난과 역경을 받는 이유

본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리간 빌립보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그들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케 했던 것입니다(행 17:6).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온 성을 소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죽도록 배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처럼 세상을 요란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유한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반응은 회개함으로서 요란케 되든지, 아니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하여 요란케 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요란케 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두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요란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조공과 멸시와 핍박을 받는데, 이것은 크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을 예상하라

죽도록 배를 맞은 바울과 실라의 고통과 아픔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형 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최고 절정에 달하는 한밤중이 된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 전하면 이런 '한밤중'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깊어지는 한밤중! 소망의 밤이 전혀 없는 한밤중! 이런 한밤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배반, 반드시 순탄한 길만 걸음만 걸어야만 생각하는 마시시요, 선교 사역을 나가면 언제나 안전하고 무사히 선교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시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깊은 고난에 빠지는 한밤중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기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한밤중'을 예상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순탄한 길과 성공만 바라보는 까닭에 작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밤중을 만나도 의연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정치기가 되어야 합니다.

찬미와 기도의 이유(I)

바울과 실라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딸은 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온 몸은 피부타령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했을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한밤중에 찬미와 기도를 하였는데 놀라움과 감동(행 16:25). 그러하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니다. 육체에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찬미와 기도를 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더 철저히 깨달을 수 있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대속 의뢰하여 되었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니다(고후 15,8,9).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찬미와 기도의 이유(2)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는 신앙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로 8:28). 그들은 단순히 아픔 수 없어서 고난을 참 참고 견뎌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누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크게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고후 6:4-10).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참견 지나가는 것이지만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알았기에 모든 고통을 잊고 기쁨으로 참아냈습니다. 찬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대 22:23-25). 보십시오. 세상은 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찬미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옥에 가두고 핍박할 수는 있건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시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으며 더 통성한 위로를 얻어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시요. 오히려 주를 위해 바는 고난을 기뻐하는 정치기가 되시시요.

중단될 수 없는 사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선교 사역도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혀 있으므로 더 이상 자유롭게 다니며 선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한밤중에도 드려진 찬미와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사역은 감옥 안에서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찬미와 기도 소리는 감옥 안에 울려 퍼졌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길게 놀라운 마음으로 그들의 찬미와 기도를 들었습니다. 본분 밭에서 '들리나'라는 단어는 '들림' 가운데 '들리나', '들림' 가운데 '들리나' 연이어 깊이 감동되어 들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들을 사랑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한밤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 '한밤중'을 만났다고 해서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시요. 그 '한밤중'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면, 그 어느 보다 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의 사역

바울과 실라의 새로운 사역은 단순한 찬미와 기도로서 시작된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통하여 시작된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났을 때, 도망치려 하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랑의 마음 그 날 자식들을 축복하게 매질했던 잔혹한 간수장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기다리다가 복음을 선포한 사랑의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은 그 간수장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교 사역도 이러한 사랑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주님을 구원 받던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서 사랑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가게 하신 주님! 그 구원이 열방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역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선한 정치기의 삶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런 찬미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축복의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빌립보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1,3,4장 참, 4:16-18). 언제든 때 또 다시 '한밤중'에 처한 자식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미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바울!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견지안과 철저하게 정곡까지 꿰뚫어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을 본 받겠다고 다짐한 것! 아니라 바울처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차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찬미와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선한 정치기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WHEN JESUS CALLS

“...(17)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Tend My sheep. (18)”Truly, truly, I say to you, when you were younger, you used to gird yourself, and walk wherever you wished; but when you grow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gird you, and bring you where you do not wish to [go.]” ...” (John 21:11-19)

After Jesus'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He began His gospel ministry. One of the first people He called to Himself was Peter, “Now as Jesus was walking by the Sea of Galilee, He saw two brothers, Simon who was call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casting a net into the sea; for they were fishermen.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t. 4:18&19). Jesus called, and Peter and his brother listened. They left their boat, and followed Jesus for three years. During that time, they experienced many amazing situations. Peter, in particular, walked on water, healed sick people, fed thousands of people with a few loaves of bread and fish, saw Lazarus rise from the dead, witnessed Jesus' transfiguration in the presence of Moses and Elijah, and even directly heard God's voice from heaven. He got a glimpse of the majesty and power of the Kingdom of God because Jesus called him and he answered the call.

Prior to his own death by crucifixion, Peter recounted and confirmed the truth of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he witnessed concerning the transfiguration of Jesus Christ, “And I will also be diligent that at any time after my departure you will be able to call these things to mind. For we did not follow cleverly devised tales when we made known to you the power and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we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For when He received honor and glory from God the Father, such an utterance as this was made to Him by the Majestic Glory,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pleased’—and we ourselves heard this utterance made from heaven when we were with Him on the holy mountain. So we have the prophetic word made more sure, to which you do well to pay attention as to a lamp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s and the morning star arises in your hearts” (2 Pet. 1:15-19). Can you feel the assurance in Peter's story? Aren't you glad he answered Jesus' call? For Peter's testimony of the transfiguration gives us a preview of Jesus' coming kingdom. It serves as a lamp to guide us until Jesus' return.

After being called by Jesus, Peter's life wasn't sinless and perfect. He made a lot of mistakes. There were times when he doubted his Master, disagreed with the cross, and even denied (3 times) knowing Jesus. Indeed, some of his actions were quite terrible. But the resurrected Jesus went to the sea and called Peter. He prepared him breakfast, fed him, and then asked him (3 times)—“Do you love Me?” Jesus earnestly wanted to see Peter. The angel at His tomb told the women there,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to meet Him in Galilee. Jesus still loved Peter. Jesus still called Peter. He knew from the beginning that Peter would fail in the practice of his faith. He knew Peter would fail the upcoming tests he had to face. Yet, the eternal love of Jesus Christ prayed for him, “Simon, Simon, behold, Satan has demanded permission to sift you like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may not fail; and you, when once you have turned again, strengthen your brothers” (Lk. 22:31&32). Jesus even told Peter, “Peter, the rooster will not crow today until you have denied three times

that you know Me” (Lk. 22:34).

Until meeting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here in John 21, Peter had felt downright miserable. His heart was sad and empty because he denied His Master. Even though his Master achieved victory in His resurrection, Peter was still disheartened. He just went back to his old ways of catching fish. For three years, he had left his old job behind, now he is back on a boat. He has been fishing all night, and yet the boat is still empty. He's tired and frustrated. As morning breaks, his Master comes to visit him. Jesus tells him where to catch fish, and He even makes him breakfast. During the conversation at this morning meal, Jesus calls,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He's telling Peter He knows he failed, but He's also asking him if he still loves Him.

My dear friend, have you failed Jesus? If you have, Jesus is asking you, “Do you still love Me?” What a wonderful question! Peter respond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then said, “Tend My lambs.” He gave Peter a magnificent privilege, a special job. He told him to look after something that didn't belong to him, but solely to the Son of God. He asked Peter again, “Do you love Me?” And again, Peter sai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responded, “Shepherd My sheep.” How much value do His sheep have? Each one is worth more than this earth. Jesus gave Peter the superb task of leading His people. Jesus asked a third time, and Peter responded a third time, and Jesus said, “Tend My sheep.” Here is the principle. If you love Jesus, then you have to take care of His people, what belongs to Him, not you. You've got to shepherd His precious and priceless people. You've got to tend to His business, not yours. This work is for His glory, not yours. It is a selfless responsibility, not a selfish duty.

The question comes, “How far do Christians need to go in practicing this principle?” Without doubt, this privilege comes with a high price. Jesus told Peter, “Truly, truly, I say to you, when you were younger, you used to gird yourself and walk wherever you wished; but when you grow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gird you, and bring you where you do not wish to go” (v. 18). In other words, you have to deny yourself, and by faith follow the cross. The way is narrow, and includes much persecution, suffering, and hardship. But Peter reminds us, “do not let this one fact escape your notice; beloved, that with the Lord one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like one day” (2 Peter 3:8). God does not view time as we do. We need to look at our future with eternal perspectives. Peter saw life in this way, “But according to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2 Pet. 3:13). Peter sought eternal things. He truly had hope. His life was based upon Jesus' call, whose love is forever.

My dear friend, just as Jesus sought and called Peter, He now seeks and calls you. He loves you. He wants to know if you love Him. How are you going to answer His call? Are you willing to tend and shepherd His flock? He's calling you today, right now! Please open your heart, and follow Him in faith. 🙏

다음주일학교

예수께서 부르실 때



김성곤 목사

“...(17)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를
내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늘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21:11-19),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을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4:18,19).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이후 삼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매우 중요한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으며, 병자들을 고쳐 주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위업과 능력을 어렵곳이 보았을 것입니다.

확신에 찬 증거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자신이 목격했던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참됨을 자세히 말하고 확증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로라 만대 아가미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업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두루에 대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되니 그때에 우리가 깨지 가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행후 1:15-19). 베드로의 이 말에서 큰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에 대한 베드로의 증거는 앞으로 도래할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비취는 등불이 되어 줍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예수님을 의심했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고서는 예수님을 팔렸으며,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은 정말 매우 어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며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조반을 준비하신 후 그를 만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요 21:15,16,17)라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천사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복외하라”(막 16:7)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네 까투르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눅 22:34).

낙심한 자를 찾아오심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치절한 비참함에 젖어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은 슬픔과 허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으로써 승리하셨음을 안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낙심에 빠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갔었습니다. 그는 지난 삼 년 동안 어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물고기는 한 마라도 잡히지 않았고 그가 탄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했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이 틀 즈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어느 쪽에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고, 베드로를 위해 어부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15). 예수님은 자신이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있음을 던지시 말씀하시면서도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질문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소중한 특권, 고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것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도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양은 한 마리 한 마리가 큰 세상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최고의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던지셨고 베드로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할 일이 지이기적인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함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를 어느 정도까지 실천해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이 특권은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늘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행 21).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은 매우 좁고, 많은 팔박과 고난과 역경이 따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베후 3:8).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께 느끼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인생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베후 3:13). 베드로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위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를 찾았고도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든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기꺼이 예수님의 양을 치고 돌보시겠습니까? 오늘, 아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A**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 다”(사 26:3).

한국도 가을이라 날씨가 제법 쌀쌀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 타인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10월에 적었던 비가 멈추게만 했는데 여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문안합니다.

작년 9월 첫 주부터 10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해 온 ‘와게 가정교회’가 금년 7월 첫 주에 했던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끝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대’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 주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러린이 성경공부와 ‘무פל나다’, ‘넌다’ 그리고 ‘자판단’ 어머니와의 성경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사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한 때 마음 문을 닫았으나 성경공부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와게 가정교회 직구들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핏발을 통해 흠여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던 초대교회처럼 이곳 스리랑카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역자인 니르말리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만 사역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는데 벌써 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어디든지 함께 다니는 니르말리. 그녀는 동족들이 섬기는 우상 앞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멀리 왔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자신감이 없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녀를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로 세게 할 것인가? 그녀가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금식은 생소한 것이라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묵상을 통해 기도제목으로 주시며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금식하자 했더니 “아마 3일 금식하면 죽을 거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와 다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핏대를 향해 달려가는 전도자는 방향 없이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아니하며, 담요질하는 자와 상 언기 위해 애쓰고, 이기기를 다루는 자는 정제하며 자신의 무릎을 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 한다’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 전도자의 자세와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견고히 말씀의 반석에서 머 사람 가득한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스리랑카에서 7기일 올림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10일(월)~11월 18일(화)	C	10교구 5지역	최지윤
11월 10일(월)~11월 19일(수)	L	15교구 3지역	남용철
11월 13일(목)~11월 21일(금)	D	7교구 4지역	장길남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3일(월)~11월 12일(수)	G	15교구 1지역	최호일
11월 4일(화)~11월 15일(토)	G	11교구 5지역	박호용
11월 6일(목)~11월 14일(금)	D	1교구 4지역	이부성

*선교 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스리랑카를 다녀와서

정 봉 성 (성도, 5교구)

선교를 지원해 놓고 선교 가기를 막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회사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부딪히기도 하고 합의를 작성해야 할 정도의 골치를 썩는 일들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리라 보다’ 하고 생각해 포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보내셨다.

우리의 사역지는 스리랑카의 타밀지역이었다. 첫째 날이 주일이어서 경건회와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사역을 시작해 예비 된 타밀인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전도지와 복음서를 전해주며 기도해주고 꼭 주님을 영접하시라고 전했다. 때로는 타 종교인들의 거부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전했을 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뻐다. 이튿날도 사역 방법은 동일했지만 넓게 퍼져서 전하다 보니 이동 시간이 많아서 많이 전하지 못했다. 오후에는 헌한 산촌 마을에 갔었는데 빈곤도 많고 경제가 많이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동한 지역에서도 두세 집을 방문하는 동안 경찰이 왔다는 정보를 듣고 대피하였다. 다른 조원들은 이미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고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바로 해방되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사 홈페이지에는 위촉되지 말고 과감하게 전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축초전도로 시작하여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타밀어 성경을 배포하는 등 전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우리를 찾는 소동이 벌어져 그 지역을 빠져나왔다. 비록 피해 나갔지만 그래도 좋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과 복음서와 전도지를 얻어본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번째 도시로 향했다.

두 번째 도시는 아비사랄라였는데 이 곳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감동 깊은 사역이 이어졌다. 전도지도 복음을 전달 때 나서는 다른 팀원들보다 잘 전하지 못해서 많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많이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고 사역이 잘 진행된 것은 주님의 은혜와 팀원 간의 중보기도 덕분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언어와 찬양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원 간의 이해와 협력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팀이 나갈 텐데 드러나는 예 형태도 팀원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의지하는 데 더 집중할 기 기대한다.

(편집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4

전도자의 변명 2

‘현대 사회에서는 타 종교인에게 말로 직접 예수를 전하는 것은 불쾌감을 주므로 타 종교인 이상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 보여주는 인격으로 인해 전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굳이 입으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될 변명이 생긴다.

사도행전을 잘 읽은 사람이라면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행 4:33). 복음이 확장된 이유는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다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현대에도 거짓없이 일어나고 있다. 단기선교를 제대로 다룬 사람이라면, 아니 한국에서라도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체감했을 것이다. 이것은 체험에만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다른가? 혹 그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가? 그때는 직접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전혀 불쾌감 없이 바로 받아들이었는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위하여”(행 4:2).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지금의 사람들보다도 복음을 직접 전하는 방법에 대해 더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행 4:13a). 사도들은 기탄없이 말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 전함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 도를 “어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행 4:13a, 17b)고 결의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때에도, 그 후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일어난 부흥의 때에도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설교와 말씀의 전도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말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냐? 듣지 않으면 어찌 믿겠는가? 종교간의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에 어긋나지는 행동인지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라. 그대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 구원을 알게 되었는가? 그대는 들음으로 얼마나 큰 선물을 얻었는가? 이제 그대도 들은 바를 전하여 하지 않았는가?

병원전도일지

모두가 해야 할 일

김해정 (집사, 2교구)

몇 년 전만 해도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목회자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설교와 예배를 통해 영혼에 대한 열정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일은 전도가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보면 계속 전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두 생각이 서로 갈등하다가, 말씀을 통해 전도는 성도라면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이르렀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젓가락을 들고 춤을 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월요일마다 전도를 나갔는데 다른 날도 계속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병원 전도팀을 만들어서 병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전도를 하면서 놀랄 만큼이나 준비된 영혼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처음에는 그들에게서 나는 악취로 힘들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즐겁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부터 그들의 악취가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전도를 할 때에는 '내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전하면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중에 죽은 환자들이 보면 '그가 영접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주님을 알고 갔을까?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잘 말해 준 것일까?' 하는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표정이 어땠는지, 천국을 소망한 표정이었는지, 시체를 확인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을 영접하고 저와 말씀을 나누는 한 사람이 중환자실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복에 호소를 끼고 있어서 말을 못했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는 것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누어도 그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 사람은 거품을 물었습니다. 아마도 곧 죽을 거라고들 말했습니 다. 저는 그 동안 가끔씩 빠지고 이 사람에게 오지 않은 것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대충 복음을 전한 것 등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이 힘들어 세 주 정도 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정리되어 다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다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도대가 체계가 잡히고 공식화되어 저는 잠시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 팀장을 하던 집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사람이 더욱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전도대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 지금 저 중에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가 해야 합니다. 전도에 소망함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기 바랍니다.

✽양도실.....

7교구 풍남 5구역 강신호 집사

뇌출혈로 인해 분당 보마스 병원 302호에 입원 중입니다. 채유하여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병 중에서도 주님과 꾸준한 교제를 갖고 집사가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가·족·을·원·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11	송순이	1 창년부	김을혜(10)	1319	박종석	11 창년부	이근호(14)	1327	신명비	15 창년부	송정숙(14)
1312	김은	1 창년부	박성렬(11)	1320	이순일	11 창년부	이근호(14)	1328	이하철	16 창년부	
1313	안연자	1 창년부		1321	염숙경	13 소망부	이근호(14)	1329	서진아	19 창년부	김준식(19)
1314	최성일	13 창년부	김을숙(8)	1322	홍용환	13 창년부	이혜수(15)	1330	김미정	19 창년부	김선진(19)
1315	김천한	6 창년부		1325	홍종진	14 창년부	김경호(14)	1331	강미혜	19 대학부	손형아(19)
1316	장정식	9 창년부		1324	김준자	14 창년부	김경호(14)	1332	박지숙	19 대학부	김진도(19)
1317	이태일	9 창년부		1325	김선란	14 창년부	김경호(14)	1333	정원정	19 대학부	황정연(10)
1318	김지화	9 창년부		1326	신승로	14 창년부	신정환(14)	1334	김누리	19 대학부	이연비(2)

※ 후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인중'성도를 소개합니다



원래 저희 집안은 교회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본 적도, 내가 교회에 가라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 시절 강부로 있으면서 교회가는 사병들을 인솔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 교회에 얼굴을 비추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났고 제대 후에도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교회에 등록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천원교회 한 집사님이 길에서 내게 복음을 전하기에 천원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의 신앙을 이해하시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만 할 모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윤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부모님 모시는 것을 반대한다면 저는 모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내도 신앙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가정이 화목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훈을 '성경대로 살자'라고 정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면 일단 우리의 주장을 덮고 성경적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해결책을 나눕니다. 특히, 말씀 따라 전도에도 힘쓰려 합니다. 저도 아직 초신자이지만 회사 동료들 전도하여 함께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 봤지만 가정교수 때문인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교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 시절 마이애시 음악교회를 나와 복음 전도자로 순회 전도를 하겠다. 그는 4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였다.

(편집실)

✽ 다음 주일 찬송.....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인 할도 릴레나스(Haldor Lillenas, 1855-1959) 목사는 노르웨이 게 마케의 전도 목사인데, 15세 때부터 교회에서의 목회에 부름을 받아 디즈 패시픽 성서 대학에 입학했고, 그 후 시절 마이애시 음악교회를 나와 복음 전도자로 순회 전도를 하였다. 그는 4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였다.

- 1절 예수께서 그대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시며 여전히 그대의 마음 문 두드리시며 문 열어 달라 간절히 호소하시네. 아, 더 이상 주님을 거절치 마라.
 - 2절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그대의 마음 문 밖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은 그대를 향한 은혜롭고도 자비로운 긍휼 때문이니, 애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라.
 - 3절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가? 친구와 같은 주님을 박대하지 말고 그대의 죄를 모두 버리라. 아, 그대의 마음 속으로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진실하시라.
 - 4절 지금이말로 주님을 영접할 때이니 오늘 주님을 거르며 영접하라. 더 이상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 문을 열라. 더 이상 주님을 피하지 마라.
- 후렴)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그대가 결심로 피해도 그분은 또 다시 그대의 마음을 찾으시리니, 애 최후 심판의 날에 그대를 변호해 줄 유일한 그 분. 그대의 구주를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마라. 주님을 피하지 마라.

이 찬송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죄인들이 응답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좋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 묵상하시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하나님 말씀에 진지해짐

김대 혁 (중등2부)



지난 여름방학에 중등부 친구들과 불가리아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서 뜻이 통한 친구들과 단기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교 중, 어른들과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작은 문제들이나 짐을 나르는 등의 힘든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어리기 때문에 현지지의 어른들이 더 귀담아 듣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식촌에 복음을 전하려고 갈 때에는 그들의 거친 행동과 낯선 삶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불가리아에 된 성경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정교회의 복복이 심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힘들어합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예배시간에 목사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도 듣고,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친구 몇 명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감동하기도 합니다.

가람 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친구들이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 오기를 꺼려합니다. 때로는 학교 친구들이 주일에 함께 놀러가지 않는 것을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 교사양정부 교육을 받으며 ☆

제7강 기독교론(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모든 질서 위에 있는 진리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셨으며 천지 창조와 계시의 주체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지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3).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주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히 믿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파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롬 3:25-26).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천지창조의 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거느니라"(엡 2:20-2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받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뱀과 같은 속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한대원 기자)

오직 주를 믿하여

강소영 (유치부 14반 전생남)



큰딸이 처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큰딸을 보며 내가 처음으로 주님의 만찬에 초대되어 주님의 몸과, 피를 내 몸에도 실 때를 회상했습니다. 나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댁아가길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랜 성찬에 찾아 성찬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게까지 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하며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고 초라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주시고 책략책 감세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푸른하늘 원구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는 유치부실을 책 쪽을 친구들이 소리높여 부르는 찬송에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고 질서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한해의 시작도 새해를 보며 계획하게 하시고 한해의 마무리 역시 땅에 떨어지 췌구는 낙엽을 보며 숙연한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내 몸에도 모시고 살기에, 주님의 사람인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주님에 의해서만 말하고 주님에 의해서만 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위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4)

예전에는 내게 환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능력'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 주시면 된 내 왜냐?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거지? 병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난 뒤 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난이 와도 예전보다 조금은 덜 불평합니다. 더불어덜 불평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또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 저것, 가리미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어떻게 위로하시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죠. 말씀을 읽다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고, 더 문제가 작아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고집부려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나만 손해이지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던 돈이나 주세요, 세상의 명예를 내게요'라고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겠지요?

(권형일 기자)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2지희 월례회
일시: 12일(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감동전도의 총회 및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본당 112호

별세

1. 채보녀 성도 김중순 집사의 모친, 유육권 집사의 시모, 12교구 도화2구역/ 10월 31일 별세, 11월 2일 장례
2. 유육녀 권사 김강준 안수집사의 장모, 이순자 집사의 모친, 12교구 화정구역/ 1일 별세, 3일 장례
3. 백준기 타교집사 박갑순 집사의 아들, 백국현·백경희 성도의 부친, 18교구 죽전2구역/ 2일 별세, 4일 장례
4. 조점임 집사 박대식 집사의 모친, 김경순 집사의 시모, 4교구 부자계구역/ 2일 별세, 4일 장례

결론

1. 이준석 군이규봉 씨, 조성은 씨의 아들)과 정윤경 양친석관 성도, 박영자 집사의 딸, 18교구/ 15일(토) 12:00 창당대평당에서 2층 노블레스
2. 이몽준 군(배은순 씨의 아들)과 주지에 양(주동석 성도, 김학희 집사의 딸, 15교구/ 15일(토) 12:30 우리대평당(☎965-0075)

◆영결식 카메라 봉사자 모집

일 시: 주일 및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
장 소: 본당 및 영결식
자 격: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할 분
(예배시간 전부터 준비하여 함)
초보자 가능(자재교육 후)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기도원 식당·기도원 관리인·인쇄실·경비직
2. 자 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등본·당회장추천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총신교회 사무국 ☎ 552-8200

영결식 총회 교회

이번주 새벽기도회 답당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주일)
설교자/기도자	안치원/이갑재	이태복/김동욱	양재욱/이상해	이상진/이승득	조규호/김영주	최성규/김정신	하종철/장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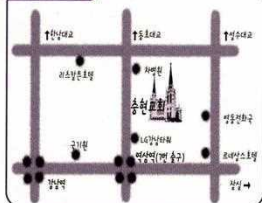
예배 답당안내 (11/12-11/16)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회	기도	설 교
11/12	수요 I		김명자	그리스도인의 자랑(골 6:12-16) 김교섭 목사	
11/12	수요 II		이태복	한동열	참된 신앙과 사랑(삼상 4:1-11) 안치원 목사
11/14	금요교회	특별찬양 (스프라노 김연희(6교구/버이올런 김해옥)	김용덕		이종철 목사
11/16	주일 I		김익환	전종용	나를 따르라(요 21:11-19) 방준영 목사
11/16	주일 II	제 요단강 건너편에 외 버이올런 김연희(한글루아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교섭	김광남	나를 따르라(요 21:11-19) 방준영 목사
11/16	주일 III	내 주님 임으신 그 웃음 외(할렐루야 찬양단(지도: 이수진)	서병희	이형수	예수께서 부르신 때(요 21:11-19) 이종대 목사
11/16	주일 IV	나의 믿음을 약할 때 외(할렐루야 찬양단(지도: 이수진)	최종철	박철구	예수께서 부르신 때(요 21:11-19) 최관영 목사
11/16	주일 V	나 어는날 꿈을 해매며 외(테리 이상훈(별빛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용덕	김영은	예수께서 부르신 때(요 21:11-19) 이종대 목사
11/16	주일찬양		정진호	정원근	하나님의 부르짖음 외(2) 김경훈 목사

총회기도의 창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총회전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령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모든 배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총회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통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총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축복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중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사무장로

- | | | | |
|----------------------|-------------------|-------------------|-------------------|
| 김의철
기독교대학
교무국장 | 김은호
노장현
당회장 | 오전국
노장현
당회장 | 이병학
노장현
당회장 |
| 최대원
노장현
당회장 | 엄영철
노장현
당회장 | 강보용
노장현
당회장 | 이 훈
노장현
당회장 |
| 정우식
노장현
당회장 | 김영일
노장현
당회장 | 문용구
노장현
당회장 | 조진재
노장현
당회장 |
| 최무길
노장현
당회장 | 김진재
노장현
당회장 | 이창호
노장현
당회장 | 차지식
노장현
당회장 |
| 이종석
노장현
당회장 | 이병욱
노장현
당회장 | 임우현
노장현
당회장 | 최기훈
노장현
당회장 |
| 이갑재
노장현
당회장 | 전종용
노장현
당회장 | 정종원
노장현
당회장 | 이정우
노장현
당회장 |
| 황인일
노장현
당회장 | 한승규
노장현
당회장 | 김환기
노장현
당회장 | 한승철
노장현
당회장 |
| 이형수
노장현
당회장 | 안동현
노장현
당회장 | 황인만
노장현
당회장 | 김구형
노장현
당회장 |
| 이재환
노장현
당회장 | 박민익
노장현
당회장 | 이병식
노장현
당회장 | 정대우
노장현
당회장 |
| 권영호
노장현
당회장 | 조종환
노장현
당회장 | 배준식
노장현
당회장 | 김영철
노장현
당회장 |
| 박찬섭
노장현
당회장 | 최지훈
노장현
당회장 | 노영환
노장현
당회장 | 박철구
노장현
당회장 |
| 신상수
노장현
당회장 | 강정현
노장현
당회장 | 고대순
노장현
당회장 | 김영은
노장현
당회장 |
| 강정현
노장현
당회장 | 김순곤
노장현
당회장 | 함철주
노장현
당회장 | 윤석진
노장현
당회장 |
| 안석현
노장현
당회장 | 이재환
노장현
당회장 | 서광호
노장현
당회장 | 정선현
노장현
당회장 |

■ 부목사

- | | | | | |
|-------------------|-------------------|-------------------|-------------------|-------------------|
| 이종대
노장현
당회장 | 정현민
노장현
당회장 | 박민익
노장현
당회장 | 여성기
노장현
당회장 | 류병희
노장현
당회장 |
| 이종철
노장현
당회장 | 김영준
노장현
당회장 | 여국근
노장현
당회장 | 김교섭
노장현
당회장 | 안창덕
노장현
당회장 |
| 방준영
노장현
당회장 | 나광영
노장현
당회장 | 정종호
노장현
당회장 | 김용덕
노장현
당회장 | 고광환
노장현
당회장 |
| 위건광
노장현
당회장 | 김익환
노장현
당회장 | 김정주
노장현
당회장 | 장 훈
노장현
당회장 | 임원덕
노장현
당회장 |
| 이희식
노장현
당회장 | 최종철
노장현
당회장 | 하종철
노장현
당회장 | 안치원
노장현
당회장 | 이태복
노장현
당회장 |
| 장종신
노장현
당회장 | 양재욱
노장현
당회장 | 이상진
노장현
당회장 | 조규호
노장현
당회장 | 최성규
노장현
당회장 |
| 이재영
노장현
당회장 | | | | |

■ 남전도사 이병희 (지교)

■ 여전도사

- | | | | | |
|-------------------|-------------------|-------------------|-------------------|-------------------|
| 정현희
노장현
당회장 | 신동후
노장현
당회장 | 윤인숙
노장현
당회장 | 한영준
노장현
당회장 | 김연석
노장현
당회장 |
| 홍순애
노장현
당회장 | 이옥주
노장현
당회장 | 김정자
노장현
당회장 | 안태순
노장현
당회장 | 김정연
노장현
당회장 |
| 조옥자
노장현
당회장 | 강정길
노장현
당회장 | 강재구
노장현
당회장 | 최문실
노장현
당회장 | |
| 전은희
노장현
당회장 | 김영준
노장현
당회장 | 김정자
노장현
당회장 | 이수경
노장현
당회장 | |

- 찬양감독 강인구 ■ 전담지서 서준성
- 찬양감독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영(노장현)
- 협신선교사 하효섭(노장현)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0:3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복음 예배)	본 당
	V 오후 5:00	본 당
(본당이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교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찬양	오후 10:30	본당 앞출발 금요집회 후 본당 앞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3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II 오전 10:3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II 오전 10:3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